

북한의 2012년 신년공동사설 관련 참고자료

1. 개 관

- ‘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’ 題下の 당·군·청년보 「신년공동사설」 발표(1.1 06:29, 중통)

- 12.31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및 黨중앙위·중앙군사위 공동 구호 제시의 연장선상에서 공동사설 발표

※ 06:10 중통 요지, 06:29 중통 전문, 09:00-09:37 중·평방, 중앙TV

2. 공동사설 주요 내용

□ 2011년 평가

- “김정일을 영결하게 된 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최대의 손실, 당·인민의 가장 큰 슬픔”, “김정일의 정신적 영도로 강성국가 건설에서 대혁신·대비약이 일어난 승리의 해”라고 주장
- 각 부문별 주요 성과를 요약, 제시
 - △인민생활 대진군에서 커다란 성과, △경제강국의 토대 마련, △새 세기 산업혁명으로 지식경제형 강국 건설, △경공업 개선 완비 및 평양시 개선, △군대와 인민의 대풍모가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 등 주장

□ 2012년 과제 제시

- 금년을 “김정일의 강성부흥 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는 해이며, 김일성 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”로 규정
- (정치) △정치·사상적 단결의 위력 강화, △김정일 유훈 관철, △김정은으로의 대를 이은 일심단결 강화·발전
- (경제) △경공업·농업이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, △‘함남의 불길’ 따라 대혁신·대비약, △식량문제 해결이 초미의 문제, △4대 선행부문(전력·석탄·금속·철도)·기초공업부문 생산력 강화, △CNC化 등 기술집약형 지식경제강국 건설, △핵심기초기술과 기술공학 발전

- (사회) △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빛냄, △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등 모든 부문에서 열기 고조, △제국주의 사상·문화적 침투 분쇄, △이색적 생활 풍조 뿌리뽑기 투쟁 강화, △평양시 면모 일신 (김정일 유훈)
- (군사) △선군 기치下 국방력 백방 강화, △총폭탄정신으로 김정은 결사옹위 및 김정은 명령·지시 무조건 관철, △만단의 결전준비 태세 확립, △부대 지휘관리 강화, △국방공업의 잠재력 발휘
- (대남) △김일성·김정일의 통일 유훈 철저히 관철, △조국통일3대헌장 및 남북공동선언 관철, △전쟁책동 저지·파탄, △‘반전 평화’ 구호下 군사적 도발 분쇄와 미제 침략군 철수
- (대외) △‘자주·친선·평화’ 이념下 선린 우호관계 확대 발전

3. 주요 특징

□ 김정일 유훈통치에 따른 기존 정책 노선 유지

- 새로운 정책 제시보다는 분야별로 기존 정책 방향 유지
 - 김정일 시대와 동일하게 ‘신년공동사설’ 형식 유지
 - * ‘김정일의 혁명업적과 유훈은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생명선이며, 혁명의 만년채보’, ‘김정일의 유훈,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정책을 한 치의 드팀도 없이,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, 이 길에서는 절대로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’

□ ‘김정은 중심’으로의 정책 운영 강조 및 경제 부흥에 집중

- 김정은을 김정일과 동일시하는 등 김정은으로의 단결 강조
 - * ‘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, 영원한 단결의 중심’, ‘김정은은 곧 김정일’
- 경제 부문에서는 ‘강성부흥 전략 관철을 위한 총돌격전’ 강조
 - △주공전선으로 경공업·농업 설정, △‘함남의 불길’ 확산 강조, △‘식량문제 해결이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’ 주장
 - * 주공전선 : ‘10년 경공업·농업 ⇨ ‘11년 경공업 ⇨ ‘12년 경공업·농업
 - 그밖에 △산업의 CNC화 및 새세기 산업혁명 등을 통한 지식 경제강국 건설, △평양시 건설현대화(김정일의 간곡한 유훈) 강조

- 군사에서 선군혁명 계승과 함께 강성국가 건설에서 역할 강조
 - △김정은 유일적 영군체제 확립, △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둥·주력군, △강성국가 건설에서 돌격대 역할 등 강조
- 당 중심의 운영 시스템 강조
 - * '김정일의 유훈을 받들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당을 강화하고, 그 영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'

□ 대남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, 주한미군 철수 주장

- '조국통일3대헌장 및 남북공동선언'에 따른 김일성·김정일 통일 유훈 관철 등 기존의 원칙적 입장 표명
 - * '민족적 화해와 단합은 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며, 민족 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함.'
- 한편, 2011년과 달리 남북 대화·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음.
 - * 2011년에는 △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대북 대결정책 철회, △대화과 협력 분위기 조성, △남북 내왕 교류 보장 및 협력사업 장려 등 언급
- '08년 이후 4년 만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
 - * '한반도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을 南에서 철수시켜야 함.'

□ 핵문제 관련 언급 없이 기본적인 대외 정책 유지

- 김정일의 방중·방러 성과를 평가하면서, 전통적인 자주·친선·평화 등의 선린우호관계 입장 견지
- 특이한 점은 2009년~2011년까지 언급했던 '비핵화 실현' 입장 등 핵문제 관련 언급이 없음.

4. 2012년 주요 정치 일정

- (북한) 1.8 김정은 생일(30돌 추정), 2.16 김정일 생일(70돌), 4.15 김일성 생일(100돌), 4.25 인민군 창건일(80돌), 9.9 정권 창건일(64돌), 10.10 당 창건일(67돌)
- (국제) △南 4.11 총선, 12.19 대선, △美 11.6 대선, △러 3.4 대선, △中 11월 후진타오 당 총서기직 임기 만료 ㉠

- 붙임 1. 2011년 및 2012년 주요 과업 비교
 2. 2000년 이후 신년공동사설 분야별 비교

붙임 1. 2011년 및 2012년 주요 과업 비교

분야	2011년	2012년
정치 · 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의 영도적 역할, 당 조직 강화 ○ 당대표자회 정신 강조 ○ 인민 군대의 전투적 위력 강화, 당 정치사업 심화, 군민단결, 무자비한 섬멸전 등 강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김정일 유훈 관철, 대를 이어 계승 ○ 김정일의 명령·지시를 결사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 강조 ○ 선군의 기치 따라 국방력 백방 강화, 국방공업의 잠재력 발휘
경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<u>총공격전</u> 해로 구현 ○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 ○ 4대 선행부문은 인민생활 대고조 불길의 '밑불', 화학공업기지 생산정상화 강조 ○ 농업은 인민생활 문제 해결의 생명선 ○ 자력갱생 원칙 철저히 구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함남의 불길은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<u>총공격전</u>의 기치, 새로운 전환의 기치 ○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<u>경공업과 농업</u> ○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 ○ 4대 선행부문, 기초공업부문은 새로운 100년 대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돌파구 ○ 새 세기 산업혁명은 우리 식의 지식 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
사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조건과 환경 개선, 문학예술부문에서 사상적대 강조, 사회주의 무상 치료제 언급, 축구강국, 체육강국 건설 ○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전개 ○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, 사회주의 선경도시, 선경마을 건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,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문예방침 관철, 체육열기 고조 ○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 분쇄, 이색적인 생활풍조 뿌리뽑기 투쟁 ○ 평양시 면모 일신은 김정일의 간곡한 유훈
대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대결상태 해소'를 위한 △'동족대결 정책' 철회, △'6.15·10.4선언' 이행, △반전·평화·반외세 투쟁 선동 ○ 북침전쟁연습, 무력증강 중단 요구 ○ '대화와 협력사업' 적극 추진(내왕·교류 보장 및 협력사업 장려) ○ 남북공동선언 및 '우리민족끼리' 이념 강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김일성·김정일의 <u>조국통일 유훈 철저히 관철</u> ○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강조하면서, <u>조국통일3대헌장</u> 및 <u>남북공동선언 관철 주장</u> ○ 전쟁책동 저지·파탄 및 반전 평화 구호下 군사적 도발 분쇄와 <u>미제 침략군 철수 주장</u>
대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북아 평화 및 전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○ <u>자주·평화·친선</u>의 기본 외교 노선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국과 러시아 방문이 세계평화, 동북아 안전보장, 친선관계 발전에 기여 ○ <u>자주·친선·평화</u> 이념을 견지하며, 北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국가와의 선린우호 관계 확대 발전

붙임 2. 2000년 이후 신년공동사설 분야별 비교표

① 제목 및 주요 내용

연도	제 목	주 요 내 용
2012	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김정일 유훈은 생명선·만년의 재보이며 무조건 끝까지 관철 ○ 김정일 유훈 관철, 대를 이어 계승 ○ 주공전선은 경공업·농업으로 설정 ○ 김일성·김정일의 조국통일 유훈 철저히 관철 ○ 자주·친선·평화 이념 견지
2011	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올해는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 해, 경공업은 총공격전의 주공전선 ○ 당의 영도적 역할 및 군의 전투적 위력 강화 ○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전개 ○ 전 한반도 비핵화 실현 입장 불변
2010	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공업과 농업에 주력하여 인민생활 향상의 결정적 전환 달성 ○ 남북공동선언에 기초, 남북관계 개선 및 민족 화해·협력 실현 ○ 미·북 적대관계 종식 촉구, 대화·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 및 비핵화 실현
2009	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김정일 중심의 체제 결속과 계획경제 및 자력갱생 강조 ○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남측에 책임을 전가
2008	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 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○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역사적 전환 강조
2007	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전 전개 강조 ○ 먹는 문제 해결, 경공업 혁명, 4대 선행부문 발전 등 강조
2006	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경제정책 지속 추진 ○ 선군정치를 근간으로 한 체제수호 과시
2005	전당, 전군,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체제 결속과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 ○ 체제 수호 및 경제난 타개에 역점
2004	당의 령도 밑에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치사상, 반제군사, 경제과학 등 3대 전선 적극 추진 ○ 체제 결속 및 내부역량 강화 강조
2003	위대한 선군 가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내외 정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지 표명 ○ 제국주의 침투 경계 및 사회주의 고수 강조
2002	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대(수령, 사상, 군대, 제도) 제일주의 제시 ○ 김정일 중심의 내적 단결 강조
2001	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난의 행군 결속의 자신감을 바탕으로,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진격 강조
2000	당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상·총대·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제시 ○ 경제대국 건설 강조

② 남북관계

연도	주요내용
20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김일성·김정일의 조국통일 유훈 철저 관철 ○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강조하면서, 조국통일3대헌장 및 남북공동선언 관철 주장 ○ 전쟁책동 저지·파탄 및 반전 평화 구호하 군사적 도발과 미제 침략군 철수 주장
20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대결상태 해소'를 위한 대북 대결정책 철회 및 6.15·10.4선언 이행 촉구 ○ '대화과 협력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며, 내왕 교류 보장 및 협력사업 장려 등 언급 ○ '반전·평화·반외세 투쟁' 선동 등
20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북공동선언 기초 하에 남북관계 개선 및 민족 화해협력 실현 촉구 ○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北의 입장이 확고부동함을 강조 ○ 남북협력 사업 추진을 강조하며, 민족 공리공영을 저해하는 법적·제도적 장치의 철폐 촉구
200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과업 제시 없이 6.15·10.4 선언 이행, 우리 민족끼리, 화해협력 등을 기치로 통일전선 강조 ○ 남한 당국에 대한 비난, 반정부 선동에 치중하면서도 남북 화해와 협력, 군사적 긴장완화 등 언급
200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10.4 선언' 이행으로 남북관계를 '우리민족끼리'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 ○ 외세를 배경한 민족우선주의, 민족자주 입장에서 남북관계발전과 통일에 이롭게 법률적·제도적 장벽 정비 주장 ○ 전쟁 근원해소 및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투쟁 전개 강조
200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06년을 "통일운동의 생활력과 6.15 통일시대의 위용이 힘있게 과시되었다"고 평가 ○ "민족중시, 평화수호, 단합실현, 등 "3대 과업" 제시
200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국통일구호로 "자주통일·반전평화·민족대단합"의 "3대 애국운동" 제시 - "자주통일"=통일을 가로막는 미국 배경, "반전평화"=미군철수투쟁 강화, "민족대단합"=반보수 대연합을 통한 보수세력의 결탁과 도전 분쇄 강조
200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난 5년을 '6·15 공동선언'의 정당성·생활력을 과시한 시기로 평가 ○ "민족자주공조", "반전평화공조", "통일애국공조"의 3대 공조 제시
200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6.15 남북공동선언' 고수·이행 강조 ○ "우리민족제일주의" 기치하에 '민족공조'를 통한 반미자주화 투쟁 촉구
200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6.15 남북공동선언' 이행을 강조,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에 대한 기대 표출 ○ 외세공조를 배경하고 한·미간 이간 의도로 '민족공조' 집중 부각
200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"'6.15 남북공동선언' 철저 이행'과 '자주' 및 '민족공조' 실현을 주장 - △주적론 철회, △보안법 철폐, △외세결탁 반역행위 금지, △남조선에서 침략군 철수 등 요구
200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6.15 남북공동선언'의 철저 이행 강조 - "조국통일 3대원칙"(자주, 평화통일, 민족대단결)을 "공동선언"의 기초로 부각
2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"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의 해"로 설정 - 조국통일 3대 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의 기치 아래 사상과 제도,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한 단결 강조

3 경제·사회 분야

연 도	주 요 내 용
20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함남의 불길은 2012년 위대한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기치, 새로운 전환의 기치 ○ △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은 경공업·농업(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) △선행부문, 기초공업부문은 새로운 100년 대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돌피구 △새세기 산업혁명은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 ○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 분쇄 및 이색적 생활풍조에 대한 투쟁 ○ 평양시 면모 일신은 김정일의 간곡한 유훈이라고 강조
20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 해로 구현 ○ △경공업은 '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' △4대 선행부문은 인민생활 대고조 불길의 '밀밭' △화학공업기지 생산정상화 △농업은 '인민생활 문제 해결의 생명선' ○ 자력갱생 원칙 철저히 구현 강조
20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김일성 유훈 관철을 위한 당의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강조 ○ 경공업·농업은 인민생활 향상의 '주공전선', 4대 선행부문은 '인민경제의 기관차, 인민생활 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적 고리' ○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△인민소비품 생산 증대, △농업생산의 획기적 증산, △국가적 투자 증대, △경공업 생산 원료·자재 적기 보장, △대외시장 확대 및 대외무역 활동 적극 전개 등 과제 제시
200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속공업을 '사회주의자립경제의 기둥'으로 언급하며 '선차적 발전의 중심고리'로 설정(4대 선행부문 중 전력·석탄·철도운수에 우선하여 '금속공업'에 중점) ○ 인민생활향상 관련 '08년과 유사하게 △식량문제 해결 △생활필수품 수요 보장 △평양시 주택건설 제시 ○ 경제관리 관련 국가의 중앙집권·통일적 지도의 강화를 강조하며, 노동행정·계획·재정규율의 강화 언급
200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은 경제전선이라고 강조, 경제건설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언급 ○ 경제강국 건설의 기본 방향으로 "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" 강조, 과학 기술 진흥 및 인재육성 강조 ○ "인민생활 제일주의"를 제창, 농업·경공업 부문 등 인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문에 주력 시사
200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전을 전개, 경제문제 해결에 국가적 힘을 집중할 것 주장(먹는 문제 해결, 경공업 혁명, 4대 선행부문 역량 집중) ○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, 과학인재 양성 촉구
200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업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재설정(농업 증산에 모든 역량 총동원) ○ 경공업 부문의 증산 및 주요 산업시설 개건·현대화 강조
200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' 강조 ○ 올해 사회주의 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이라고 규정
200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내각 주도하에 경제와 과학기술의 일체화를 통한 경제관리 개선 추진 ○ 전력, 석탄 등 선행부문 및 기간산업 발전을 통한 공급역량 증대
200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국방공업'의 선차적인 역량집중을 강조 - △4대 선행부문의 혁신적 추진, △경공업 현대화를 통한 인민소비품의 대대적 생산, △농업생산 증대, △첨단과학기술의 적극적 도입 강조
200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우리 제도 제일주의」를 통한 「우리식 사회주의」 경제 건설 강조 - △4대 선행부문 계속 추진, △인민생활 향상, △경제관리 개선, △과학기술 및 교육사업 발전을 통한 공업의 기술개건·현대화
200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장·기업소의 기존설비 정비를 최우선적인 경제정책 과제로 설정 ○ 새로운 환경, 새로운 분위기에 부응하는 '우리식 경제관리체계' 개선
2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성대국 건설 본격화를 위한 「3대 기둥」(사상·총대·과학기술)을 제시 - △4대 선행부문 생산 증대, △농업부문 역량집중, △국토관리 사업 박차

4 대외관계

연도	주요내용
201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김정일) 중국, 러시아 방문은 세계평화, 동북아 안전보장, 친선관계 발전에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 ○ 자주, 친선, 평화의 이념을 변함없이 견지하며 北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들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 강조
20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北의 입장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 ○ 앞으로도 자주·평화·친선의 이념 밑에 北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들 발전시키며, 세계의 자주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강조
20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의 근본문제는 미북 사이의 적대관계들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 ○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,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北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언급 ○ 자주, 평화, 친선의 기치높이 나라들 사이의 선린우호관계들 발전시키며,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
200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北의 자주적 대외정책의 정당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고 강변 ○ 앞으로도 자주, 평화, 친선 이념밑에 北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들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 실현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
200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 ○ 앞으로도 자주, 평화, 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·협조관계들 더욱 강화·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
200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오늘 미국은 전 조선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반공화국 반통일 전쟁책동에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 ○ '자주·평화·친선'의 이념 밑에 진보적 인민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
200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은 미국이라고 비난 ○ 반제자주의 기치,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친선적인 새 세계들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언급
200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반도에는 미국의 반복 압살책동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 있다고 언급 ○ 미국은 北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시도들 버려야 하며, 대북 적대시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
200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족공조를 방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미국이라고 강변 ○ "미국의 힘의 논리에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권도 세계평화도 수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"고 언급 ○ 미북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北의 원칙적 입장은 일관하나, 미국의 강경정책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
200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반도에서의 대결구도는 남북 조선민족 대 미국이라고 강변 ○ 미국이 대북 핵선제 공격을 공공연히 떠들면서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주장, 미 호전세력들이 도발적 군사압력 소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
200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별한 과업 제시 없이 제국주의자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답했다고 언급 ○ 미·북 관계 관련 언급 無
200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北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든지 대외관계들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○ 미·북 관계 관련 언급 無
2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화와 인도주의를 부르짖는 제국주의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고, 반제정신과 주체적 역량으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 강조 ○ 미·북 관계 관련 언급 無